월요광장

인성 영재라야 세계에 통한다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해마다 학교를 그만두는 초·중·고학생이 늘고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만 6만8000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학업중단율은 1.01%로 미국의 7.4%, 독일의 6.5%, 일본의 1.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학업 중단은 그 학생이나 부모의 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사회적 비용이 약 1억 원에 이른다고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외국 유학을 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다.

또 자발적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자세히 보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개인 탓도 있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례로 학교에서 하는 외국어 교육으로도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면 외국 유학 가는 초등학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회가 변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인재가 달라지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 제도와 내용이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해 수요자인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지나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병폐는 명문대 졸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데서 비롯된다. 대학을 서열화하여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을 차별하고, 서울에서도 명문·비명문으로 갈라 줄을 세웠다. 그 줄에 맞춰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사회 지위가 결정되는 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다. 소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재는 명문대 졸업생보다는 인성이 바른 인성 영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사회는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보았다.

수학 영재, 과학 영재는 들어봤지만 인성 영재는 처음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인성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 영재라는 말이 어색한 것이다. 수학 영재가 수학에 뛰어나듯, 인성 영재는 인성에 특출 난 인재다.

인성 영재는 인간성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한 인재이다. 이들은 자신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자율 생활을 한다. 이들의 특징은 인내, 집중력, 창의력, 책임감, 배려심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인성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러한 특징을 생활 속에서 몸에 익혀 체질화하게 한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는 성공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러니 어느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다.

설마 그럴까, 의구심이 드는 사람에게는 실례를 보여주겠다. 지금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되어 있는 국내 기업 창업주의 학력을 한번 조사해보라. 명문대는커녕 대학 졸업장도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인내, 집중력, 창의력, 책임감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다.

인성 영재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라면 무엇보다 인내, 집중력, 책임감, 창의력, 배려심을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인성 영재가 많이 배출될수록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또 국제사회에 새로운 한국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인성 영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명문대 입학이 목표가 아닌, 성공 체질을 만드는 데 큰 뜻을 두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필자 또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법조칼럼

'영감님'과 차별 없는 법

강성두
변호사

어릴 적 어른들에게 흔히 듣던 말들 중 하나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좋은 대우가 따르는 일이라면 다른 일보다 더 책임과 의무가 부가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우습게 들리기까지 하는 영감님이라는 호칭과 관련해 개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를 하였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를 막 시작할 무렵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저를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고 '영감님'이라고 하길래 '저는 판사가 아니고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말끝마다 '영감님, 영감님'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으로부터 듣는 어색한 호칭에 내내 불편했지만 저를 칭하는 호칭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사건에 대한 호소에 담긴 목소리의 절절함 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하지는 못하고 상담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밤 선배 변호사들에게 낮에 있었던 얘길 하였더니 예전에는 판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영감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영감은 본시 조선시대에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부터 판사나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영감타령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도 영감님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더욱 더 아닙니다. 그저 일반 국민이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 호칭에 담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차가운 시선은 '영감님'으로 상징되는 권위만을 누릴 뿐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법집행이 공평하지 않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자기의 부, 권력, 비호세력 등을 믿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줄 알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득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그 힘을 이용해 처벌까지 피할 경우 사회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위가 한참일 때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월터 샤이델과 스티븐 프라이즌이라는 두 역사학자는 카이사이를 시절의 로마와 2011년 민주주의 시대의 미국을 비교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인즉 로마시절의 상위 1% 지배계급은 로마제국 전체 부의 16%를 독식했지만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40%의 부를 독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처럼 편중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가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공정한 법집행마저 차이가 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고

기록문화 진흥에 관심을 갖자

김형주
광주시 5·18기록관추진기획단 연구사

우리는 세계적으로 독창성이 우수한 문자이자 문화유산인 한글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인쇄기술과 기록정신을 통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기록물 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 위에서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기록문화 유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 가운데 12개의 품목이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기록문화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할 바 없이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만큼 뛰어난 기록문화유산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렇게 유구한 기록문화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기록유산이 소홀히 취급되는 시기도 있었다.

격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무지와 무관심, 생활고 등을 이유로 고매한 유학자 · 선비들의 수많은 저술물들이 하찮은 폐지로 고물상에 팔려나가거나 안방의 초벌 벽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관공서나 기관들에서는 일정한 보존기관이 지나면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파기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으로 되어있다. 이 문서들에는 회계분야 서류를 비롯하여 각종 현황자료, 문화축제, 관광개발, 국제행사, 보건의료, 사회복지, 신도시건설, 도로관리, 교통시설, 상하수도관리, 공원녹지 등 모든 정책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제는 관공서의 문서라 하더라도 문화재관리, 생활통계, 도시계획 등 당대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긴요한 자료들은 일정 기준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박물관, 향토사료관 등에 이관하여 소장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료의 온전한 보존이 가능하다. 모든 형태를 가진 생산물에는 인간의 고도한 정신적 작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책이나 문서, 사진 등의 형태로 된 기록물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기록물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특정한 시대상이나 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화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콘텐츠의 내용과 질을 다양화하고 심화시킨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양한 수단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세대로의 문화적 전승은 아직까지는 기록을 통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록문화의 발달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셋째,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크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라니경, 직지심체요절 같은 삼국시대와 고려 및 조선 전기의 우리나라 초창기 인쇄물과 활자, 활판 등 인쇄문화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록관련 자료들도 사찰이나 유적지, 명승지 못지않게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문학관도 기록자료를 수집·보관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완결성과 역사성, 예술성을 가진 기록자료는 기록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며 문화자원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5.18민주화운동관련 제반 문서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보관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건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18기록관이 5.18민주화운동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시교육을 하는 총본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기록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리한 근육만들기 위험… 유산소 운동해야 '몸짱'

초콜릿 근육을 만들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키우고자 헬스클럽으로 몰려간다.

하지만 마음만 앞선 나머지 성급하게 몸만들기에 나선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가 지나친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근육이 빨리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하루 섭취 칼로리의 30% 이상을 단백질로 채우는데 그 대표적인 식단으로는 닭 가슴살, 계란 같은 게 포함된다. 거기다가 소위 근육보충제로 불리는 단백질 제품도 먹는다.

하지만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질환과 동맥경화 같은 각종 성인병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운동 없이 근육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잖다. 갑작스런 근육 운동은 근육과 뼈 등 조직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며, 심해지면 염증으로 진행된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깨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근육 운동 전에는 반드시 10~15분간 빨리 걷기 등으로 땀이 조금 날 만큼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맥박 수가 120회 이상 됐을 때 근육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 근육 운동을 한 뒤에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운동 초보자들은 근육 만들기에만 급급해 유산소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적게 하면서 근육만 키우려다가는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근육 발달 속도를 못 따라간 심장이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다 지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시간 운동 중 40분 이상을 유산소운동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남성들이 열망하는 근육은 오랜 시간 천천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한 순간에 커지는 게 아니다. 매사를 단박에 승부 보려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장기간 운동을 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므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자.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社說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낙후도 반영하라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고 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파산제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실만을 기준으로 파산제를 운용한다면 광주·전남에서 살아남을 자치단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지난해 40.06%, 전남도는 16.3%로 전국 광역 및 도 단위 단체 중 가장 낮다.

전남도내 일선 지자체는 더욱 열악해 강진(7.3%), 함평(7.9%) 등 10% 미만이 7곳, 보성(10.2%), 완도(10.8%) 등 10%대도 9곳에 달한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광주 동구와 남구 등 2곳, 전남에선 무려 11곳에 이른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공정한 룰이 전제가 돼야 한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주자를 동일선상에서 출발시킨다면 탈락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자립도를 높여 주고,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평가를 해야 제대로 굴러 갈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부실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교부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고, 기초연금 등 복지비를 지방에 떠넘긴 게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구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염전 노예' 필히 뿌리 뽑아야

신안 섬지역 염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인권침해 실태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목포경찰과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 점검반이 지난 7일부터 '염전 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를 비롯해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70명을 면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0%가 넘는 20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50대의 경우 10년간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염전 업주는 근로자 2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안군 일대 염전이 8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중간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는 사실을 미리 안 일부 업주가 종사자를 육지로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생산자협회는 이번 파문으로 천일염의 이미지가 실추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인권침해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0년동안 강제노동을 당한 30대 정신지체 장애인의 사례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섬 지역의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은 그 때마다 반짝 단속에 나서면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후약방문'이었고, 대책 또한 미봉책에 그쳤다. 이번에야 말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안은 순박한 인심과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1004개의 섬이 있다 하여 '천사의 섬'으로 불린다. 지역 이미지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염전 업주들도 조사와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천일염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無等鼓

두명의 빅토르

빅토르 최는 한국계 러시아 록가수다. 구(舊)소련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 2세와 우크라이나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한국계 3세인 셈이다.

빅토르 최는 28세에 요절할 때까지 짧지만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러시아의 비틀즈'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러시아 록음악은 그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소력 강한 가사와 리듬, 제임스 딘을 연상시키는 우수에 찬 용모, 대중 친화적인 활동으로 러시아혁명 이후 70여년간 지속돼 온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반항과 자유를 외치며 경직된 소련체제를 향해 절규하듯 뿜어내는 록의 선율은 짧은 시간에 빅토르 최를 그 시대 최고의 우상으로 자리매김 하게했다. 자유를 갈망한 러시아 젊은이들은 그를 '문화대통령'으로 부를 정도였다.

1990년 8월 15일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지자 러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토했다. 10대 여학생 5명은 "빅토르 최와 하늘에서 교감을 나누겠다"며 투신자살을 하기도 했다. 모스크바의 인사동으로 불리는 아르바트에는 그를 기리는 추모의 벽이 설치돼 있고, 지금까지도 추모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의 러시아 이름은 빅토르 안이다. 2011년 러시아에 귀화할 때 알렉스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지만 빅토르 최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빅토르가 승리를 뜻하는 영어 '빅토리'와 발음이 비슷한 점도 고려했다.

빅토르 안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에 두 개의 메달을 안겼다. 1500m 동메달에 이어 1000m에선 금메달이다. 러시아 쇼트트랙 역사상 첫 메달이다보니 러시아 전역에 빅토르 안 열풍이 부는 것은 당연하다. 덩달아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고 하니 두 빅토르가 한류 열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반면 국내에선 빙상연맹을 비난하는 댓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내몬 체육계의 파벌싸움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러시아에 부는 '빅토르 열풍'이 반가우면서도 씁쓸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12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디자인실	2200-536
사회부	2200-616	프로젝트팀	2200-555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사업국	2200-541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0195〉
여론매체부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체육부	2200-697	〈FAX	227-9500〉
사진부	2200-693	서울지사	02-773-9331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